

NAVIX GO · NAVIX X1L

아이의 하루를 “확인”이 아닌 “안심”으로.

실시간 위치 · 이동경로 · 보호구역 · 트래커 찾기 · SOS · 가족 공유

우리아이 안심서비스 제안서

“아이에게는 자유를, 부모에게는 안심을.”

학부모님
잘 도착했을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위치 정보가 아니라,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등교부터 귀가까지 반복되는 부모의 걱정을 NAVIX가 하나의 안심 경험으로 연결합니다.

“학교에 잘 도착했을까?”

출발 후 이동 중인지, 학교에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

“학원에서 집으로 오고 있을까?”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로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

“혹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아닐까?”

SOS 버튼으로 가족에게 즉시 알림과 현재 위치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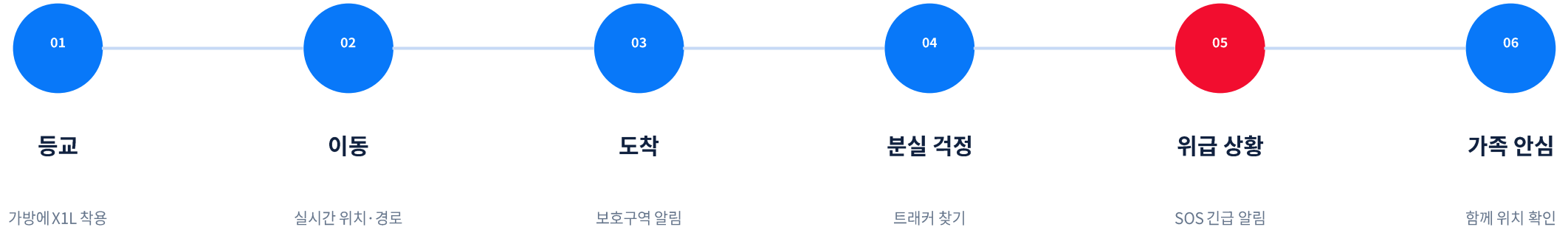
NAVIX의 가치

찾아보는 서비스 →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 → 위급할 때 연결되는 서비스



NAVIX X1L 하나로, 아이의 이동 전 과정을 연결합니다.

기능 나열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하루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메시지 | “아이에게는 자유를, 부모에게는 안심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동경로까지 한눈에.

부모가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안심 기능입니다.

실시간 위치

지금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바로 확인

이동경로 · 이동기록

집-학교-학원 등 하루의 이동 흐름을 지도에서 확인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화면

복잡한 GPS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어디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

마케팅 포인트 “전화하지 않아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안심.”



부모가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도착과 이탈을 먼저 알려줍니다.

학교·집·학원 등 자주 가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① 보호구역 설정

학교·집·학원 등 원하는 구역을 지정

② 진입/이탈 감지

아이가 보호구역에 들어오거나 벗어나는 순간을 감지

③ 도착/이탈 알림

“학교에 도착했습니다”처럼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전달

“계속 보는 안심”보다 “필요할 때 먼저 알려주는 안심”



가방 속에 있어도, 앱에서 소리를 울려 쉽게 찾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실용적인 “트래커 찾기” 기능입니다.

트래커 찾기

앱에서 알림음을 실행해
가방 속 X1L에서 소리가 울리도록 합니다.

앱에서 실행

소리로 찾기

아이도 간편

마케팅 메시지
“학교 준비물처럼 매일 쓰는 기기, 잃어버릴 걱정까지 줄였습니다.”



위급할 때는 설명보다 빠른, 버튼 하나.

아이의 도움 요청을 가족에게 즉시 전달하고 현재 위치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SOS 버튼

아이

SOS 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

NAVIX

긴급 알림을 가족에게 전달

보호자

알림 확인 후 현재 위치 확인

“위급한 순간, 아이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이 보는 GPS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키는 안전망.

등록된 가족이 아이의 위치와 주요 알림을 함께 확인하는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가족 위치 공유

온 가족이 아이의 위치와 상태를 함께 확인

보호구역 알림

학교·집·학원 도착과 이탈을 함께 확인

트래커 찾기

필요할 때 누구나 빠르게 기기를 찾도록 지원

위급 알림

SOS 상황을 가족이 함께 인지하고 대응

기기 1대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심 경험”을 판매합니다.



아이에게는 “착용감”, 부모에게는 “지속 사용성”.

작고 가벼운 휴대형 디자인으로 매일 가방에 달고 다니는 사용 경험을 강조합니다.

작고 가벼운 크기

아이 가방에 부담 없이

가방에 간편 착용

등교 준비 때 바로 사용

안심 기능 집중

위치·알림·SOS에 집중

4G LTE 연결

외부에서도 연결 경험

제품을 “GPS 기기”가 아니라
“매일 아이 가방에 달아주는 안심 파트너”로 포지셔닝



구매 후 3단계면 바로 시작되는 안심 케어.

초기 설정의 부담을 낮추고 가족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설정이 쉬워야 매일 쓰고, 매일 써야 진짜 안심이 됩니다.”

하루의 반복되는 순간마다, NAVIX가 안심의 이유가 됩니다.

광고·상세페이지·SNS 콘텐츠도 기능이 아닌 생활 장면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등교

“학교 가는 길, 잘 가고 있나?”



학교 도착

“도착 알림이 먼저 옵니다.”



학원 이동

“이동경로를 바로 확인합니다.”



가방 속

“트래커도 쉽게 찾습니다.”



위급 상황

“SOS로 가족에게 바로 알립니다.”

콘텐츠 원칙 | “기능 설명”보다 “부모가 공감하는 순간”을 먼저 보여줍니다.

기능을 말하기 전에, 부모가 얻는 안심을 말합니다.

같은 기능도 고객 언어로 번역하면 구매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실시간 위치	→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
이동경로	→	“집에서 학교까지 잘 가고 있는지 확인”
보호구역	→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알려줌”
트래커 찾기	→	“가방 속에서도 소리로 쉽게 찾기”
SOS	→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가족에게 알림”
가족 공유	→	“온 가족이 함께 아이를 지키는 안심”

오늘도,
우리 아이의
안전한 하루

언제 어디서나, NAVIX X1L과
함께 합니다.

작지만
튼튼한
우리 아이
안심 파트너

NAVIX X1L
우리 아이 안심 GPS 트래커

실시간
위치 확인

학교 도착
알림

SOS
긴급 알림

가방 속에서도
쉽게 찾기

보호구역
설정

가족과
함께 마음 놓기

NAVIX GO

좋은 사용 경험이 후기와 추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NAVIX 크레딧을 고객 참여와 콘텐츠 확산을 연결하는 마케팅 장치로 활용합니다.



※ 구체적인 지급 크레딧·운영 정책은 캠페인별로 설정

NAVIX가 만드는 것은 GPS 단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안심 경험입니다.

기능 → 사용 경험 → 가족 신뢰 → 후기·추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위치 기술 + 생활 기능 + 가족 경험 + 고객 콘텐츠 = NAVIX 우리아이 안심서비스

NAVIX GO · NAVIX X1L

아이는 자유롭게, 부모는 안심하게.

NAVIX 우리아이 안심서비스

실시간 위치 · 이동경로 · 보호구역 알림 · 트래커 찾기
SOS 긴급 알림 · 가족 공유

www.navix.co.kr

“아이의 오늘이, 더 안전한 내일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의
안전한 하루

언제 어디서나, NAVIX X1L과
함께 합니다.

작지만
튼튼한
우리 아이
안심 파트너
♥

NAVIX X1L
우리 아이 안심 GPS 트래커



실시간
위치 확인



학교 도착
알림



SOS
긴급 알림



가방 속에서도
쉽게 찾기



보호구역
설정



가족과
함께 마음 놓기